

그림책과 동화 통해 한국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문화사절단 역할 ‘캐나다 어린이 그림책 전시회’ 지역 도서관의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아



지난 2002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로 다섯 해를 맞이하는 ‘캐나다 어린이 그림책 전시회’가 어린이 도서관과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을 중심으로 ‘문화 행사’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 행사에 목마른 도서관으로서는 500권에 달하는 캐나다 그림책을 전시할 수 있다는 것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시회를 주최하는 캐나다 대사관도 자국의 그림책과 동화가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문화사절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전시회를 담당하는 캐나다 대사관의 김민아 공보보좌는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캐나다’의 문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리고 싶었다”며 “전시회가, 유명한 그림책과 동화를 통해 거부감 없이 캐나다 문화를 전하는 효과적인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회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렇다. 1년에 한 번은 국립중앙박물관처럼 규모가 있는 전시 공간을 빌려 전시와 세미나, 각종 이벤트를 함께 하는데, 올해에는 지난 3월 1일부터 11일까지 파주 헤이리의 어린이 책 전문서점 ‘어린이 리브로’에서 열렸다. 그리고 1년에 5~6차례는 어린이 도서관이나 지역의 도서관을 돌며 전시회를 갖는데 이때는 각 도서관의 신청을 받아 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따로 비용은 없지만 운송료에 한해서 도서관 측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년에는 수원 영통도서관과 군포 시립도서관, 서울 사직동 어린이 도서관 등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가 열린 각 도서관의 담당 사서들은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들의 관심도 뜨거웠다고 전했다. 특히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책자들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단순히 캐나다 그림책 전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체험장’이 될 수도 있다. 수원 영통도서관의 양유진 사서는 작년 전시회에서 캐나다 관련 책자와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것으로 전시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전시 공간을 배분해 한쪽에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캐나다에 관한 책자를 소개했고, 다른 한쪽에는 캐나다 원화 그림책을 전시했는데 만약 한국어 번역본이 있을 경우 비교할 수 있도록 함께 전시했다. 많은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캐나다라는 낯선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좋아해 주었다. 특히 전시기간 동안 북 디자인에 관심 있거나 영어책을 좋아하는 성인들도 많이 찾아왔다.” **※**

취재: 이주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 캐나다 그림책 전시회 관련 문의: 캐나다 대사관 김민아 공보보좌 (02-3455-6083)